

INVESTORS OF INSIGHT

6월 경제 동향	1면
지표로 살펴보는 한국 경제	2면
뜨거운 감자 - 유로의 위기	3면
경제 기사 풀어보기	4면
참~ 쉬운 경제 알기 - 금리	5면
책 소개	6면

여러분의 재정목표달성을 위한
'Polaris'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 062) 431 - 6339
<http://www.kjecc.or.kr>

□ 6월 경제 동향 - 거센 바람이 잠잠해진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강한 반등 보이며 1700선 안착
 '위험은 여전' 인식, 안전자산으로 돈 몰려
 기준금리 16개월째 동결

6월은 지난달 내내 불안감을 주던 악재들이 잠잠해지고 안정을 찾아가는 기간이었다. 주식시장은 지난달의 하락에 대한 강한 반등을 보여주며 일단 1700선에 안착하였다. 우선 유럽의 재정위기 현실화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환율급등 등의 불안요인이 많이 완화되었다. 미국의 경기지표들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언제든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 다음 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각국의 긴축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안감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고 환율이 안정되는 가운데에도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과 엔화의 강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판단으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6개월째 연 2%에 동결했다. 우리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금리인상은 매년 미루는 모습은 어딘가 맞지 않는 것인지라 IMF나 OECD의 수장들이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김종수 한은총재와 윤증현 재경부장관 역시 하반기 물가상승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하반기에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금리인상에 대한 분위기는 여러모로 무르익어 가고 있다.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고 증시는 부진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조만간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을 관망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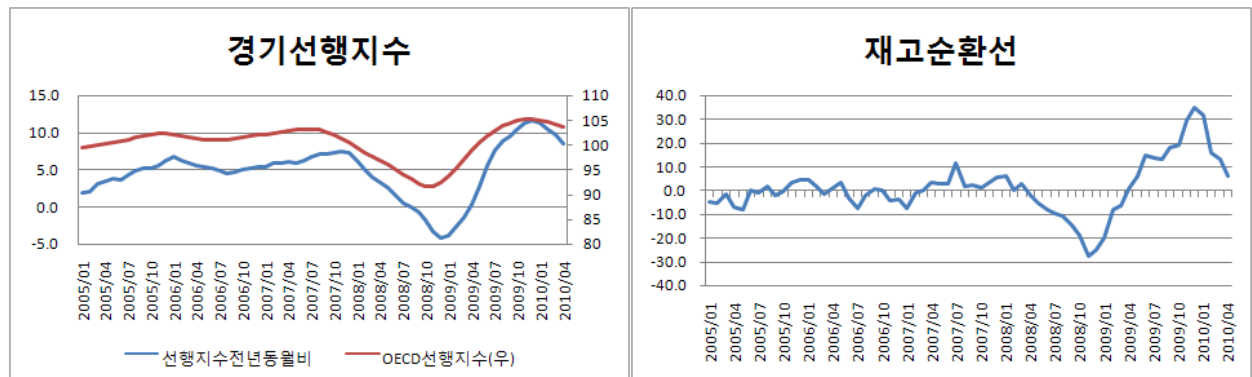
□ 지표로 보는 한국 경제

주요 경기선행지표들은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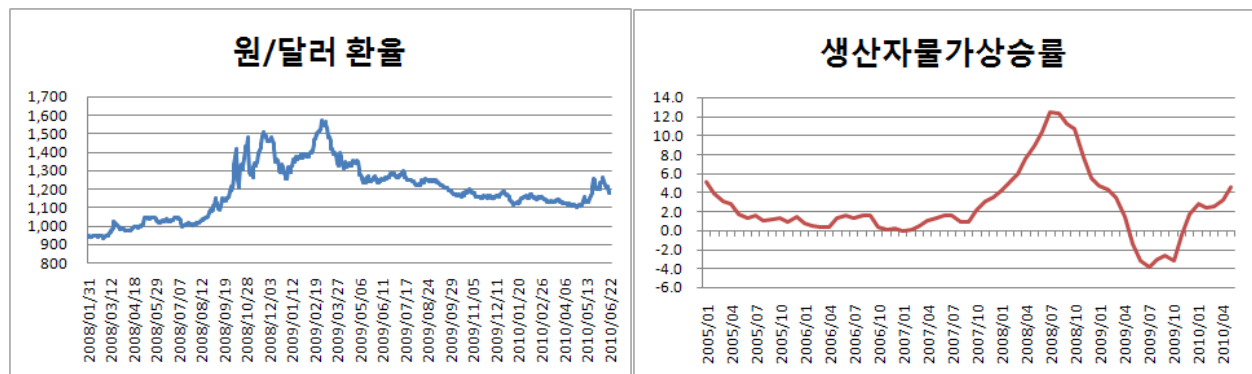
세계경제 상황에 따른 환율 변동 주시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예상

- 최근 발표된 4월 OECD 경기선행지수가 고점에서 주춤하며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내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4개월째 하락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제조업 경기를 알 수 있는 재고순환선도 비슷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표들의 수치는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확실히 경기의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5월에는 유럽의 재정문제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불안한 시장심리를 보여주었다 6월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면 그만큼 우리경제와 자산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준금리인상의 바로미터가 되는 물가상승률도 심상치 않다.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치솟고 있어 조만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하반기부터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이 높은 가스, 전기, 교통 등의 공공요금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정책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뜨거운 감자 - 유로의 위기

① 유럽통화동맹의 출범과 호황

1999년 유럽통화동맹(The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 EMU)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유로'라는 단일통화로 단일 공동시장을



을 출범시켜, 참여국의 경제를 부양하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목표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런 목적 하에 1999년에 유럽통화동맹(EMU)의 출범에 합의하고 EMU참가국 통화의 유로화 전환 환율을 결정하였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로화라는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순간, EMU에 가입한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업무가 사실상 정지되며 유럽 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결정을 수용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유럽통화동맹의 문제는 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됐든 출범한 EMU의 주도권은 유럽지역 최강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에 게 돌아갔고, 당연히 독일의 입장에서 통화정책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런 강대국 중심의 통화정책이 EMU에 가입한 약소국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먼저 유로화의 가치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외환거래의 위험이 줄어들었고, 유럽 경제의 통합으로 인해 시장도 넓어졌다. 그리고 독일 등 선진국 경제 중심으로 맞추어진 기준금리는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신흥국들에게는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EMU 출범 이후 유로화의 위치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EMU에 가입한 나라들은 이전보다 고성장을 거두게 되었다.



프랑크푸르트의 ECB 건물로 유로타워라고도 불린다 *출처 : 위키백과

다음호에 ②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 경제 기사 풀어보기

中, 근로자 임금 5년 안에 두 배로 올린다 [6월 12일 한국경제]

중국 정부가 2015년까지 근로자 임금을 두 배 올리기로 했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중국공장에서 도미노식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9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5개년 계획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소득배증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산하 노동임금연구소의 수하이난 소장은 "평균 임금을 매년 15% 이상 올릴 경우 5년 뒤면 임금이 두 배가 된다"며 "정부가 제12차5개년 계획에 임금상승 목표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이는 등 소요가 끊이지 않으면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이 내세우고 있는 '조화로운 사회' 목표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후진타오 주석은 정권 초기부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균부론'을 통치이념으로 내걸었다. 2008년 시행에 들어간 신노동계약법은 그 결정판이다. 이 법은 △△3회 이상 노동 계약 시 종신고용 △△계약 종료 시 퇴직금 지급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 등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했다. 또 매년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 임금 상승을 통한 '내수시장 성장'에 주력해 왔다. 중국은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해를 제외하고 매년 10% 이상 최저임금을 올렸다.

최근 중국에서 폭스콘의 연쇄자살 사태와 혼다 부품공장의 파업으로 열악한 중국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들이 파업을 통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을 이끌어내자 곳곳에서 모방파업이 일어나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노조결성 요구가 커지는 등 중국 내 사회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근로자들의 파업이 확산되자 정부가 더욱 과감한 임금인상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안정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이평복 KOTRA 칭다오 KBC 노무관리 고문은 "최저임금제도가 그 동안 기준 임금의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되도록 중국 정부가 임금체계를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파업에 따른 사회불안 확산을 정부가 우려하면서 초고속 임금 상승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저임금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아예 철수를 하거나 임금인상분을 제품에 전가해야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 소비시장의 잠재력을 생각한다면 철수나 이전을 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인건비가 상승하고 생산비용이 늘어나면 그 동안 중국이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해 물가인상을 억제해오던 역할을 못하게 되어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의도대로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육성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세계경제에 활력을 줄 수도 있다.

□ 참~ 쉬운 경제 알기 - 금리(1)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자본이란 돈을 뜻하니 풀어보면 '돈' 중심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돈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지만 경제를 공부하는 시각에선 기본적으로 금리, 통화량, 환율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번 달에 금리를 시작으로 이 돈에 대해 앞으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한다.



- 금리란 무엇

금리란 돈의 값 또는 돈의 사용료이다. 우리는 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대가로 이자를 주고받는다. 이때 원금에서 이자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 이자율, 즉 금리다.

- 금리의 단위

금리는 원금에서 이자금액을 나눈 비율이니까 '%'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 금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데 이때는 %P, 퍼센트 포인트라는 단위를 쓴다. 예를 들면 금리가 3%에서 4%로 올랐을 때 금리가 1%올랐다가 아니라, 1%포인트라고 표현해야 한다.

- 금리의 종류

대개 금리하면 대출금리, 예금금리 또는 단리, 복리가 떠오른다. 그 밖에도 국채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업어음(CP) 금리, 콜금리 등 무척 다양하다. 이중 콜금리라는 것은 은행과 은행 사이에서 단기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적용되는 금리로 과거에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었던 금리이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기준금리이다.

- 금리의 기준

금리 외에도 앞으로 배울 통화량, 환율, 그리고 수많은 경제요인들이 섞여서 현재의 금리가 결정되지만 그래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기준금리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경제 분야의 대표 7명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것을 열어 결정한다. 여기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통화정책을 펼치게 되고, 경제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중요하다.

다음호 금리(2)에서는 '실질금리'에 대해 알아보니다

□ 책 소개

1) 소개

이 책은 진실한 투자자를 위한 책이다. 어떤 종목의 주식을 살까 망설여질 때 명탐정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나를 생각하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탐정과 같이 탁월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그런 분석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저자 : 로버트 해그스트롬

역자 : 김택

출판사 : 휘슬러

2) 목차

1. 추리소설, 그 영원한 투자지침서 - 분석하지 않는 투자자는 언제나 가난하다
2. 에드거 앨런 포와 오귀스트 뒤팽 - 상식을 거부한 외로운 천재의 혜안
3. 월스트리트에 나타난 뒤팽 - 자료에 의한, 자료를 위한, 자료의 투자
4. 코난 도일과 셜록 홈즈 - 불가능한 것을 없애면 진리가 남는다
5. 월스트리트에 나타난 셜록 홈즈 - 관찰과 추리를 통한 넘버원의 투자기법
6. G.K. 체스터튼과 브라운 신부 - 조용한 논리의 날카로운 양날, 우리들의 신부님
7. 월스트리트에 나타난 브라운 신부 - 정곡만 찌르는 가치분석의 심리투자
8. 탐정 뺨치기 - 시장은 추측과 감각에게 승리를 말하지 않는다

3) 서평

이 저서는 투자가으로써 기업이나 산업에 대해 분석하고 나름대로 투자하는 방식을 탐정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책에 제시된 3명의 명탐정가인 뒤팽, 홈즈, 브라운 신부가 각각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들을 투자자들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뒤팽은 고정관념을 기계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회의론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며, 완벽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셜록 홈즈는 객관적이고 이지적인 견지에서 조사에 착수하고, 아무리 사소한 점이라도 놓치지 말 것을 조언한다. 또한 기존의 정보와 다른 것에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습득한 모든 정보는 논리적인 추리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리라고 이 책에서는 말한다. 우리들은 종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빈약한 자료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는 오류에 빠진다는 것을 셜록 홈즈는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하다. 브라운 신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과 자신의 직관력을 믿고 유형의 사실과 더불어 무형의 사실에도 집중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립가설에 대한 해석'을 찾아보고 재해석 하라고 주문한다. 책의 내용도 딱딱하지 않고 투자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투자가으로써의 자세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듯싶다.